

호남, 현대석유화학 분리협상 “고전”

11월20일 이사회 통해 2차분리 협상 ... 폴리머 영업팀 분리도 난산

10월13일부로 Polymer 내수영업팀 분리와 함께 가시화된 현대석유화학의 분리인수 작업이 11월20일 있을 이사회 후 2차 영업팀 분리인수에 대한 구체안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11월20일 있을 이사회 직후 Polymer 수출영업팀과 T/S(Technical Service)팀 순으로 2차 분리인수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호남석유화학 관계자는 “Polymer 수출영업팀과 T/S팀도 10월13일 있었던 내수영업팀 분리 당시에 적용됐던 현대석유화학의 대산 제1단지와 2단지의 비율로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석유화학은 현대석유화학의 Polymer 내수영업팀 분리인수 과정에서 호남석유화학이 LG화학에 전략적으로 밀리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내수영업팀 분리협상 시 여러 가지 안전을 두고 LG화학과의 호남석유화학이 협의했으며, 결과적으로 1단지와 2단지의 생산능력별 분리인수 안전이 수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석유화학업계에서는 LG-호남 컨소시엄이 현대석유화학을 50대50 지분으로 인수한 이후 LG화학이 현대석유화학의 제1단지를 인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으나 정확한 인수기준을 밝히지 않던 양사가 Polymer 내수영업팀 분리기준을 제1단지와 2단지의 생산능력 비율로 나누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석유화학의 1차 분리인수 과정에서 호남석유화학이 LG화학과의 인수협상에서 밀린 것으로 분석되며, 앞으로 있을 Monomer 영업팀 및 합성고무 플랜트 등의 인수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대석유화학 Polymer 내수영업사원들의 분리배치 과정에서는 현대석유화학의 사원들에게 일정부분의 선택권을 부여했으며, 호남석유화학은 1명의 사원을 제외한 모든 내수영업사원들이 10월부터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남석유화학은 LDPE(Low-Density Polyethylene)와 LLDPE(Linear Low-Density Polyethylene) 내수영업 신규참여로 LDPE, LLDPE 영업팀을 제3지점으로 신규 조직했으며, 현대석유화학에서 소속을 바꾼 Polymer 내수영업사원들과 기존의 호남석유화학 영업사원들로 팀을 구성한 가운데 현대석유화학 부장 출신이 팀장으로 선임돼 팀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석유화학의 내수영업 형태는 LG화학과의 호남석유화학에 내수영업을 위탁 판매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LG석유화학과의 LG화학의 관계와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김동민 조사연구원>

<Chemical Journal 2003/11/18>